

은혜 가운데 ‘죄’를 이기다!

골로새서 3:1-3

그려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깊추어졌음이라

땅의 것을 생각하면 . . .

골로새서는 사도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믿는 자의 삶에 대하여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 . .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 . .

사도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믿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 본 말씀이 무엇인가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염매고 있는 죄에서 자유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수포로 만드는 것이 있으니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심각한 일인가요?

로마서 8장 5-6절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 역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한 사도바울의 편지라는 것을 아시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집중하면 죄를 이길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를 극복하려고 죄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죄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려는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벗어나려는 노력은 우리의 영혼을 곤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탈진시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소모적인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균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단련된 영적근육을 가지고 하는 일이지, 탈진된 영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필라테스를 배우기 위해 센터를 찾았을 때입니다. 고질적으로 저에게는 어깨 통증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테니스를 했던 후유증이죠. 그래서 1년간 어깨에 근육재생 주사를 맞기도 했지만, 무리한 운동을 하면 여지없이 어깨에 통증이 찾아옵니다.

필라테스 선생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묻더니 컴퓨터에서 그림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제 어깨와 목을 지탱해주는 ‘승모근’이 발달해야 하는데, 코어 근육이 받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근육운동을 하니, 작은 근육들을 쓰게 되고, 결국은 무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당장 팔과 어깨를 움직여주는 회전근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근육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운동을 할 때마다 작은 근육들을 쓰다보면 통증이 찾아오고, 통증이 찾아오면 또 필요한 근육을 쓰지 않고 위축되니 다른 근육들이 움직입니다. 결국 아주 unbalance한 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대항해 싸우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항하다보면 지치고 끊어지고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싸우려는 노력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 곤고함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이전 몇주간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했던 고민이 언제였던가요?

그가 회심하고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찾아온 곤고함 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은 있는데,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으니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죠.

2020년 8월에 김병윤목사님이 새벽 설교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목사님이 ‘급성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떠나간 친구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답니다.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택배’ 일을 하다 보니, 치료를 받기에는 기본적인 몸의 체력이 받쳐주지 않았답니다.

병을 발견하고도 치료할 체력이 되지 못하니,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말입니다.

진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치명적인 죄의 문제와 맞닥뜨려 싸워야 하는 순간에 정작 필요한 것은 ‘믿음의 내공’입니다. 죄의 문제로 고민하다 지쳐버린 영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탄탄하게 만들어진 신앙의 근육이 우리를 지켜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는 것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죄를 지으며 기꺼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단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사랑하고, 그 죄에 텁尼克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사도바울조차도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하여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도바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해 준 것이 말입니다. 오늘 죄로 인해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보면 참 어처구니없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차 문을 닫을 때 손가락을 넣은 채로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사불성으로 술을 마신 녀석이 술을 더 요구하자 웨이터가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야, 내가 이집밖에 술 마실 곳이 없는 줄 아냐?"

큰 소리치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옆문으로 들어와 술을 요구합니다. 웨이터가 또 소리치며 내쫓습니다.

"야, 내가 이집밖에…."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눈을 깜빡이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두런거립니다.

"어케 내가 가는 술집마다 니가 일하고 있느냐? 이상하네."

술에 사로 잡힌 자는 술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듯이 죄의 법에 묶인 자는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어처구니없는 행동 그래서 후회가 되고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제일 후회가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컨닝입니다. 미국에서 시험을 볼 때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문제도 제가 내야 하는 시험에 제가 답을 달아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오로지 성경책 하나를 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적어놓은 메모를 보고 답을 쓴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저를 괴롭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와 신학 대학원생들을 가르치고 시험을 볼 때면 컨닝을 하지 말라고, 조교를 앞에도 세우고 뒤에도 세우고, 미리 앉은 학생들이 책상에 미리 답을 써 놓았을까봐 자리를 옮기고 요란을 떨면서 시험을 보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분들이지요. 그런데 그게 제 모습이고, 어쩌면 그런 부족함 때문에 다음의 누군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 줘야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죄를 지어 본 사람이,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 더 민감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바울의 연약함이 또한 저의 연약함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마음으로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를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할 때는 육신의 힘이 작용해서 마음에 원하는 옳은 것을 행하지 않고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옳지 못한 것을 행하는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바울이 자신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사랑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하여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가 있습니까?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도록 이끄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고 싶다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드러나는 것을 무척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현관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현관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해롯왕이 세례요한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즉 자신의 여동생과 결혼한 것에 대하여 죄를 지었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작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옥에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세례 요한을 죽일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딸 살로메가 춤을 추고 그 대가로 세례요한의 목을 원했을 때, 그를 죽이는 잔인함이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면 그 수치심으로 인해 언젠가는 그 잔인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일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접하기도 합니다.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살을 한 것은, 다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자신에게서 드러나는 수치심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서울시장이 성 추문에 휩싸여 자살을 하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책임을 지려는 마음보다 ‘수치’그 모든 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피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될 수는 없죠.

세상에서는 ‘공소권 없음’이라고 치부해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한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죄가 왜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무서운 또 하나의 본성이 죄를 지으므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깨어진 관계들의 대부분도 스스로의 약점과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누구와 비교된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 하는 것 역시,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자신의 약함입니다.

아내 역시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남편이 자신의 약점을 자꾸 건드릴 때가 아닌가요?

결국 땅을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는 한 우리들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 죄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끔찍한 상상이지만, 누군가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목록들을 잘 정리해서 교회 문 앞에 게시하고, 모든 교인들에게 문서로 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울까?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을까?

죄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들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은 사도바울에게도 일어났던 일인데,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죄의 목록을 다 적지 않는다 해도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수치심과 부끄러움 그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단지 기억하지 않고 계실 뿐입니다.

죄를 이기는 법: 성령님께 점령당한 삶!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무엇에 여러분들의 정신을 온통 빼앗겼었는지,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이 점점 옮겨 갔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딱지놀이와 구슬치기가 있습니다. 그 때에는 큰 통에 딱지를 모으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구슬치기를 하면서 서랍 가득히 모아놓은 구슬을 모고 얼마나 흐뭇해했는지.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던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가장 열중했던 일이 무협지를 읽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보는 데서 볼 수 없기에 밤새도록 읽던 책, 어느 날 만화가게 주인이 저 때문에 책을 바꿔놔야 할 만큼 많이 읽었던 책이 무협지였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Torch'라는 중창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평화의 기도' '주의 크신 은혜'와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의 문학의 밤, 여학교의 예술제에 초청받아 가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 3때부터 대학교 시절에는 당구에 빠져있었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루에 10여 시간을, 그리고 학교에 등교하다 당구 치던 친구를 만나면 바로 당구장에 가서 살았던 일들 말입니다.

그러던 제가 공부에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공부가 재미있던지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요즘 저는 목회가 제일 재미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의 일이란 끊임없이 무언가에 관심이 옮겨갈 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심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고, 그 관심이 성령님의 지배하에 있느냐는 것이지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재 무언가에 가장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평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보내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의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평생토록 지은 상습적인 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경험에 의하면 무엇을 그만두려고 애쓰는 것보다, 이전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될 때, 그 분이 우리를 건지시는 최선이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거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 ."

이 찬양은 만든 것이 아니라, 고백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결론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하는 대상이 죄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1-3**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라는 말을 연관지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고 사는 이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사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죄를 이기고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도시에서 있을 전도 대회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몇몇 목사들이 모인 가운데 한 사람이 무디 선생을 강사로 추천했답니다. 대부분이 이 제안에 찬성했지만,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마치 무디 선생이 성령님을 독점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다른 한 목사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무디 선생이 성령님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를 독점하고 계십니다!"

참 생각할 만한 이야기이지요?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저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죄의 본성이 없거나,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똑 같은 사람입니다. 누구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지 그의 삶을 성령님께서, 아니 생명의 법이 지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삶]에 아주 의미 있는 예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남자가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서 뛰어내렸다는 뉴스를 접했다고 상상해 보라. 어떤 그림이 떠오르는가?

아마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떨어졌나요?"라는 질문은 하지 않을 것이다. 만류 인력의 법칙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므로, 당연히 누구나 그 남자가 추락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뛰어내렸던 남자가 행글라이더를 타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당신은 또 다른 법칙, 즉 공기 역학 법칙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 추가 정보 때문에 뉴욕 상공을 오르는 남자의 모습을 그리게 될 것이다. . . 이 상황에서 공기역학의 법칙이 중력의 법칙보다 우선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남자가 행글라이더를 타고 날아오르는 사이에 중력의 법칙이 사라진 것일까? 아니다. 그 남자는 그보다 상위의 법칙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 안에는 죄의 힘이 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을 때 죄와 사망의 법은 그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매 순간 그리스도가 그 분의 생명을 드러내시도록 의지하면, 죄에 대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지요?

만일 그 남자가 행글라이더 없이 혼자 날아 보겠다고 뛰어 내렸다면?

그렇다면 중력의 법칙 이외에 어떤 것도 작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져 추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추락을 넘어서는 또 다른 원동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그림을 상상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법으로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 두마음이 늘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 죄를 이길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눈을 돌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분을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우리를 독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